

설득 불가능한 믿음, '망상'



진성오 소장의
신비한 심리사전

망상(妄想, delusion)은 실제 근거가 없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 것이다. 보통은 병리적인 수준의 믿음을 의미하지만, 믿음보다는 가정(假定)이나 의견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상학적으로는 망상은 사실과 다르게 설득되지 않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믿는 사람의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부합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환자는 망상 내용을 확고하게 신봉하고 스스로 진정 옳다고 믿는다. 이런 면에서 주관적으로 정상적인 믿음과는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떤 면에서 간단히 정리하면 망상이란 자신은 사실이라고 믿으나 타인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생각이다.

망상은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가장 흔한 형태는 피해망상이다. 보통 자신의 삶이 타인으로부터 방해 받고 도움은커녕 해를 입는다고 느낀다.

이것의 변형된 형태의 하나는 편견 망상이다. 이 망상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이

의 때문에 무시당하고 경시되며 승진에서 추월당한다고 믿는다. 가해자는 꼭 사람만이 아니라 기계, 체계, 조직, 제도일 수도 있다.

다른 흔하게 볼 수 있는 망상 중 하나는 병적 질투가 있다. 병적 질투는 지배관념과 연관되는 측면이 있다. '그녀는 나에게 속하고', '나는 그녀에게 속한다' 그런데 이 서로의 지배 관계에 누가 끼어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하는 형태이다.

그래서 병적인 질투를 보이는 환자는 자신이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해 자신만이 누려야 하는 정절의 권리를 침해 받는다고 느낀다. 특히 이런 경우 망상의 내용은 성적일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질투 망상에서 희생자는 성적으로 더 많은 매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환자 스스로 과거 성적으로 문란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의 배우자도 비슷한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게도 이런 망상은 폭력을 동반하게 되고 망상의 대상이 되는 연적보다는 배우자에게 더 강하게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면에서 스토킹도가 가볍게 진행되는 질투 망상의 색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치료자들은 망상을 변화시킬 수 있거나

설득하기 불가능한 영역으로 보고 접근한다. 그래서 망상의 주제 자체를 가지고 논박하거나 설득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여긴다.

아직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으며 과학자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늘에 보는 태양이나 달은 둥근 데 지구만 어떻게 평평한가'라는 단순한 질문에도 그들은 다양한 논박을 한다. 이런 형태의 망상이 심하게 작동하면서 자신을 괴롭히거나 타인을 괴롭힌다면 우리는 치료를 권유한다.

그러나 어떤 망상들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언 듯 볼 때 망상으로 보였던 생각들이 실제 실천되면서 인간의 문명이 발전한 면도 있다.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이 없었다면, 혹은 우주를 개척할 것이라는 망상이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와 같은 시대를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좋은 망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망상일 수 있겠지만 실현 가능한 좋은 망상인지의 여부는 인간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그 망상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줄지 고려 본다면 좋은 망상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망상'을 가져본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

정부, 주택공급 부족 우려 해소해야



기지수첩
김대환 (정책사회부)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상승을 확산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단기간 내에 집을 파는 매도인 비중은 줄어들면서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전월(-0.02%) 대비 0.06% 포인트 오르며 지난해 12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온 전국 집값은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0.14%→0.38%)은 선호 단지·저가 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집중되면서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는 등 매도자 우위 시장

의 모습을 보이며 상승했다. 인천(0.07%→0.14%)은 중·서·남동구 주유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8%→0.07%)의 경우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과천시·성남 분당구 위주로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실제로 수도권 곳곳에서 매매가격이 최고가를 기록하는 단지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데온'은 이달 전용면적 84㎡가 18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최근 거래인 지난달 매매가격(17억원)과 비교하면 1억원이나 올랐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 우미린더시그니처'는 이달 전용면적 84㎡가 7억7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 5월 7억5000만원에 손바뀜이 일어난지 두 달여 만에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경기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관교푸르지오그랑블'은 이달 139㎡가 39억원에 거

래되면서 신고가를 썼다. 지난 5월 거래가격과 비교하면 1억8000만원 올랐다.

전문가들은 서울·수도권 아파트 물량 부족과 신축 선호 현상 등으로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시장은 당분간 신축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준공(입주)물량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주택 인허가가 최근 10년 내 최저 수준으로 신규 주택 품귀 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인허가 이후에도 실제 착공 여부는 불투명한 경우가 많아 공급 부족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kd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24일 (음 6월 19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침묵해야 모두가 편하게 간다. 48년생 착한 친구를 만나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60년생 눈에서 멀어져서 마음은 변하지 마라. 72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좀 더 노력하라. 84년생 과한 것보다 좀 모자란 것이 낫지 않겠는가.



37년생 일의 결과가 좋아 명예를 높이고 실속도 챙긴다. 49년생 내가 먼저 행동해야 상대도 따라온다. 61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분. 73년생 희망과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적다. 85년생 손풍에 뚫나개 바닷가 갯이 손조로운 하루.



38년생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니 내 마음도 따라서 상쾌. 50년생 혼자서 외롭지만 둘은 시끄럽다. 62년생 여기저기 계속되는 지출에 삶이 지겨워진다. 74년생 가진 것이 없으니 가족도 부담스럽다. 86년생 늦었다고 포기 말자 절대적이다.



39년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날. 51년생 의견충돌이 염려되니 고집을 조심. 63년생 남의 말을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75년생 본질의 말은 쉬우나 주위 답을 수 없으니 조심. 87년생 혼자서라도 웃으면서 지내라.



40년생 상대의 실수를 덮어 주면 보답을 받는다. 52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걸어 간다. 64년생 힘든 일은 부모님과 의논. 76년생 오늘은 호감이 가는 이성의 유혹이 있다. 88년생 집 나간 말이 새 식구를 데려오니 이득이 많은 날.



41년생 푸바오도 인기 많은데 나는 뭘 한 것인지. 53년생 어제의 친구가 적으로 오니 배신감을 느낀다. 65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언행을 조심. 77년생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가다 보면 좋다. 89년생 매사가 귀찮고 심드렁하다.



42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하니 충전이 필요한 날. 54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까 걱정된다. 66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는다. 78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지니 보람이 있는 하루다. 90년생 욕심을 부리면 발목을 꼭 잡힌다.



43년생 반려견을 키우려면 사랑도 돈도 있어야. 55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가져라. 67년생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야 한다. 79년생 나의 불평은 나의 운을 깬다. 91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치는 격이니 잠시 지체.



44년생 평온한 바다에 한가로이 떠다니는 하루. 56년생 고칠 수 없는 것은 미련 없이 버려라. 68년생 재능 많은 자식 때문에 경제적 곤란을 겪는다. 80년생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답을 찾자. 92년생 민망한 일을 겪을 수 있는 하루니 조심.



45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57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69년생 행복은 건강에서 비롯된다. 81년생 우물을 찾았으니 두레박은 만들어서 사용하면 된다. 93년생 거래가 손조롭게 진행 되는 날이나 기쁘다.



46년생 자존감은 자신을 지켜주는 힘. 58년생 힘들어도 항상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 70년생 변화의 날이니 옷차림에도 신경 써보자. 82년생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희망을 품어라. 94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47년생 눈앞의 실속을 챙기다 이익을 놓친다. 59년생 친구가 찾아와서 근심을 던져준다. 71년생 슬만이 주는 편안함을 이겨야 한다. 83년생 주변이 인정해 주니 마음이 안정. 95년생 변화가 있어도 영향은 미미하지만 그것마저 놓치지 않도록.

김상회의四季

김 산, 푸바오는



푸바오와 할부지에 얽혀진다. 푸바오 '행복을 주는 보물' 이름도 열렬 푸바오 팬들의 투표로 정해졌으니 태어나고 한국을 떠날 때까지 일거수일투족은 그야말로 관심과 사랑 그 자체의 기록이다. 푸바오가 일종의 임대계약을 하여 중국에 비용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반환한다는 계약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가슴 아파했다. 대왕판다의 짝짓기 적령기는 3-4살 따라서 푸바오는 중국 쓰촨성 청두시에 있는 대왕판다 보전연구소에서 짝을 만나야 하는 계획이다.

용인 에버랜드에서 붙잡아둘 수만은 없는 계약도 계약이지만 사랑하기에 보내야만 하는 사정이다. 그간 푸바오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지라 푸바오가 학대당한 것 같다는 우려와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푸바오를 사랑으로 훌륭하게 키워냈고 중국 반환시에도 동행했던 사육사님의 심정이 누구보다 착잡하고 심려스러웠을 것이다. 떠나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상실감에 휩싸이는지를 사랑으로 보살펴본 사람은 잘 알기 때문이다. 아가 푸바오를 보면서 필자는 아가 김 산을 생각한다.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다. 필자가 자식으로 함께했던 독일산 셰퍼드를 계보로 하는 영특하고 장난기 심했던 슈나우저 필자의 아가, 김 산(金山) 그리움을 말하라면 김 산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12년을 함께하다가 하늘의 별로 떠났고 어느 별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도했다. 처절한 그리움으로 지내던 어느 날, 산이가 낯은 새끼처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가 슈나우저, 예전의 산(山)이와 똑같은 생김새, 목소리로 다시 와졌다. 산 신(山神) 할아버지가 보내주셨으니 이름은 똑같이 김 산(金山)으로 했다. 먼저 간 김 산의 후신 아가 김 산(金山)을 필자는 기도로 다시 만났기에 푸바오를 다시 만나기를 기도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3X3 스토쿠 X는 가로,세로,3X3각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9	2	3	6	8
6	8	2	1	7	9
9	6	2	9	8	1
6	7	8	2	9	1
1	2	9	1	8	9
8	1	9	7	8	6
2	9	1	8	1	7
1	8	7	6	9	2
9	8	6	9	2	1

2	6	9			
6			4	3	
9	5				
		3			8
4		5	1		7
5		2			
					9
9	4			5	
	5	9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7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8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